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준비 본격화

전주시, 30일까지 슬로건 공모 이메일·방문 접수... 최우수 작품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 예정

전주시가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슬로건 공모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전주는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돼 오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중국·일본 3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이끌게 됐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동아시아와 교류하고 성장하는 전주의 미래'를 표현한다'라는 주제 아래 전주를 잘 표현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슬로건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3개국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매년 각 나라의 대표도시를 각각 선정해 연중 문화예술 협력 및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는 전주시를 비롯해 중국 청두(成都)와 메이저우(梅州), 일본(시즈오카현) 등 4개 도시가 선정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슬로건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eum1008@korea.kr)로 접수하거나, 시 문화정책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응모작 중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작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작 2명에게는 각 2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되며, 최우수 작품은 향후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의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행사 준비를 위해 올해 1단계로 추진 전담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행사인 개·폐막식을 비롯해 전주국제영화제·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와 연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간 연계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숙희 시 문화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고,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슬로건이 정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서부시장에서 가을밤 정취 느껴요”

전주시, 27~28일 시장가요제·문화공연·가막축제 진행

깊어가는 가을철 전주 서부시장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서부시장 특설무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TJV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밤(야)한 밤(야)한' 축제가 펼쳐진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전북 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가요제 행사로, 27일 오후 2시부터 개그맨 황기순 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가요제에서는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예

선을 거쳐 선발된 시민들의 노래 자랑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27일과 28일 이틀간 펼쳐지는 '밤한밤' 축제는 오후 6시부터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준비한 문화공연과 가막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이 축제에서는 사물놀이와 통기타, 클라리넷 등 여러 악기들의 연주와 초대가수들의 무대 공연이 진행되고, 13개의 먹거리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신나는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야호놀이터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전주시, 대상 최필규 씨 '이것 못 참지! 야호' 등 6개 작품 선정

전주시는 도시 곳곳에 조성된 다양한 놀이터의 이용률을 높이고 생생한 놀이터 현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심사결과 최필규 씨의 작품인 '이것 못 참지! 야호'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지난 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8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시는 창의성과 홍보성, 적합성, 구성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대상작인 최필규 씨의 '이것 못 참지! 야호'는 덕진공원 맑게 숲놀이터와 노송광장놀이터 등 전주시역 7개 놀이터를 배경으로 삼형제의 가족들이 상상력과 모험심 펼쳐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꾸밈없이 영상에 담아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조은영 씨의 '아이가 행복한 놀이터'와 서승민 씨의 '몸과 마음이 신나는 맑게 놀이터'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김나영 씨의 '주말에 전주에서 뭐할까' △송지수 씨의 'Forest Day' △김동심 씨의 '해나 친구들 야호놀이터 가는 날'로 각각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각 50만 원, 우수상 각 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유튜브 영상은 향후 전주시 놀이터 홍보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덕진공원 맑게 숲놀이터와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숲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책놀이터, 팔복예술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을 조성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권주 시 기획조정국장은 "선정된 영상들을 통해 전주시가 조성한 다양한 놀이터를 알리고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시장 소식지 '전주다음'이 민선 8기 시장 방향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전주여행 기념품 팝업스토어' 축제 현장에서 운영

축제의 계절 가을철을 맞아 전주시 주요 축제 현장에서 전주여행 기념품이 판매된다. 전주시는 9월과 10월 열리는 전주지역 주요 축제 현장에서 '2022 전주여행 기념품 팝업스토어(임시 상점)'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여행 기념품은 시가 지난 4월 개최한 '2022 전주여행 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2종으로, 축제를 즐기기에 전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전주여행의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여행 기념품 팝업스토어는 지난 24일 세병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전주이탈리아문화주간'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전주한복문화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2 전주독서대전', 오는 10월 6일 전주한옥마을 향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2 전주비빔밥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되는 12종의 기념품은 △김씨의 예복시스티커 △수앤수디자인의 입체마그넷 △금수선의 자개 그림책 △디자인스타의 마그넷 3종 △주식회사 이담소의 러기타택(Luggage Tag) △에스에이치컴퍼니의 라테일 키트 △지디기획의 메시지 카드 △에코에이치케이의 포토비누 △태신의 마스킹테이프 △아라공방의 태슬 열쇠고리 △세라니리의 레진 그림책 △김원아트에 아크릴 무드등이다. 시는 관광기념품 판매와 더불어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포토이벤트와 토크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가을에 전주 주요 축제장에 오셔서 특색있는 축제도 즐기며, 더불어 전주여행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주거복지센터·IH전북본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주택개보수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LH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주택개보수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원활한 주택개보수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왔다. 또, ㈜수도(대표이사 조현숙)는 타일 자재 기부를 통해 대상자 욕실개선에 도움을 줬다.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대상가구 선정 및 공사업체 선정 등을 도왔다. 그 결과 LH의 2400만 원 기금이 투입된 이번 주택개보수사업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8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됐다.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주거 취



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주 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전주시민이 이번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다음' 민선 8기 10월호부터 전면 개편

시장 소식지 '전주다음'이 민선 8기 시장 방향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시장 방향을 알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문화, 행사 등을 세련되게 디자인해 사랑받아온 '전주다음'이 민선 8기 10월호(9월 26일 발행)부터 새로운 기획과 코너, 시각적 자료를 강화한 역동적인 편집으로 확연히 달라진 시장 소식지를 선보였다. 도시재생, 전주의 학교 등 하나의 주제를 다루었던 기획특집을 경제특집과 기획특집으로 나누어, 경제특집에서는 전주시 경제 정책과 산업 현장,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기획특집에서는 시의성 있는 축제, 문화 행사 등을 다채롭게 소개할 계획이다. 개편에 맞춰 신설된 코너도 있다. 소식지 캠페인인 '전주의 큰 꿈'에서는 민선 8기 전주시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한 장의 전주'에서는 고품격

사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전주 곳곳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주사랑, 전주10미(味)' 코너에서는 전주 맛의 근간인 열 가지 재료로 전주 음식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한, 전주의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와 연결하여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전주를 담을 예정이다. 디자인의 변화도 눈에 띈다. 매달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표지와,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 내지 디자인으로 보이는 전주, '체감하는 전주'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는 오프라인 시장 소식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식지를 읽을 수 있는 '전주다음 웹진(daum.jonju.go.kr)'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